

# DOUGLAS : THE REVENANT

더글라스 : 죽지않는 소년

PROJECT\_DT SCENARIO



안창신

개인 프로젝트

목차

---

<div>1. <a href="#">시나리오 개요</a><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나리오 소개</li><li>- 시나리오 의도</li><li>- 스토리 갈등 관계</li></ul></div> <div>2. <a href="#">메인 시나리오 PART 1 본문</a><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 href="#">Chapter 0</a></li><li>- <a href="#">Chapter 1</a></li><li>- <a href="#">Chapter 2</a></li></ul></div> <div>3. 메인 시나리오 <b>PART 2</b> 본문</div>	
--	--

## 시나리오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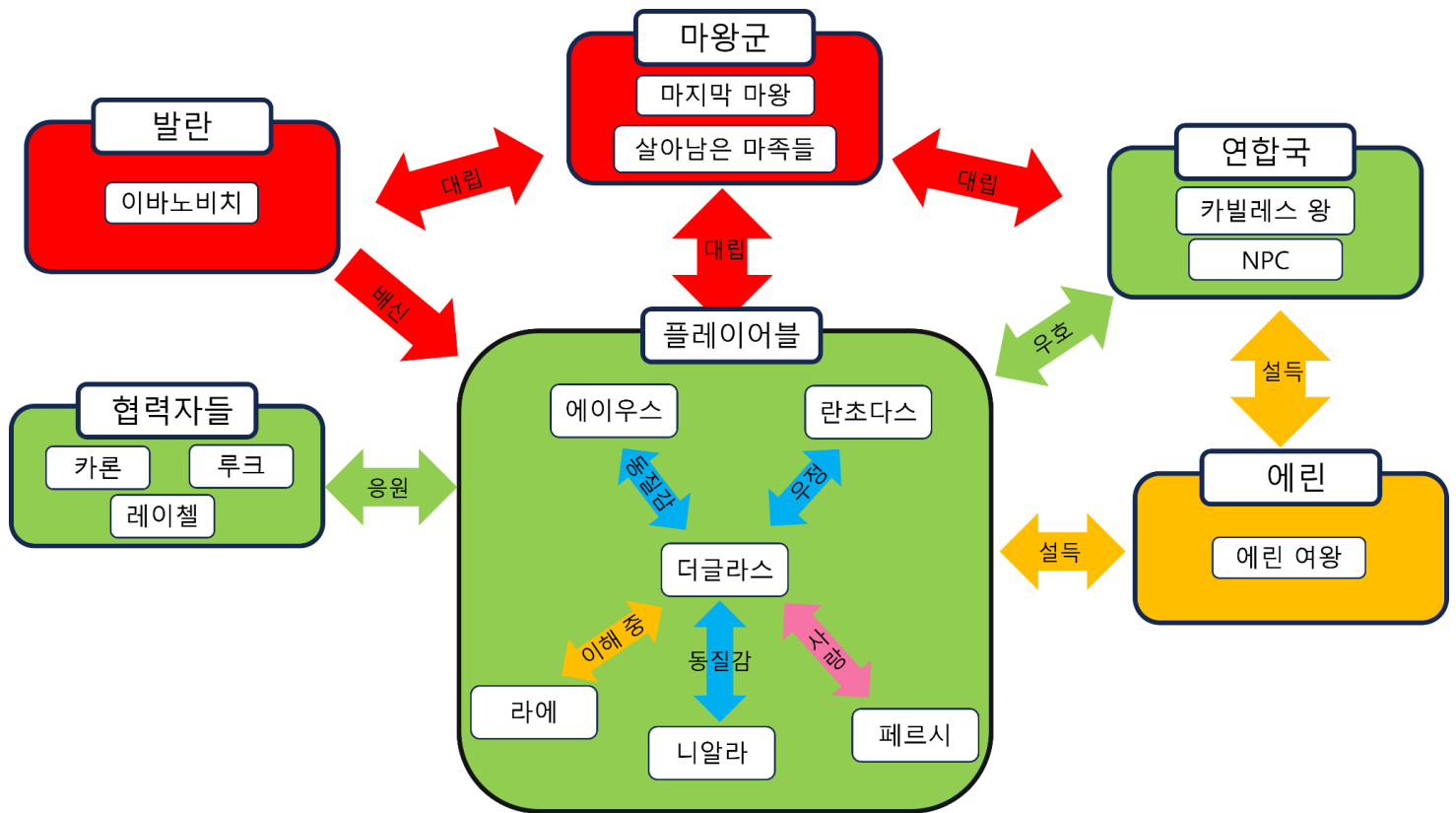
### 1. 시나리오 소개

- Project\_DT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작성한 시나리오이다.
- 게임의 플레이 파트와 대화 파트 등 대화가 나오는 시점을 구분만 두었다.

### 2. 시나리오 의도

- 스토리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상황과 장면, 대화가 나오는 타이밍을 잘 구분 짓도록 하였다.
- 게임 플레이 파트와 일반 파트를 구분해 각 파트가 어떤 신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한다.

### 3. 스토리 갈등관계



#### 플레이어블

-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플레이 하는 캐릭터.
- 더글라스를 중심으로 캐릭터간의 갈등과 협력이 존재한다.

#### 마왕군

- 마지막 마왕을 필두로 스토리 **Part 2** 에 등장하게 되는 메인 빌런 세력.

#### 연합국

- 플레이어가 활동하는 주 무대에 있는 세력으로 마왕군에 적대하는 마비노스 대륙의 연합국 세력.

#### 에린

- 마비노스 대륙에서 신흥 강국이며 종족의 화합을 원하는 평화 주의 국가.

#### 발란

- 마비노스 대륙 옆 스벤토비타 대륙의 국가로 플레이어가 있는 마비노스 대륙과 적대 국가.

#### 협력자들

- 플레이어가 모험 중 만나게 되는 인물들로 주인공 무리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들.

## 메인 시나리오 **Part 1** 본문

---

### Chapter 0 : 모험의 시작은 죽음부터

#### #검은 화면

영원한 전쟁은 없으며, 영원한 평화도 없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전쟁의 아픔이 잊혀지기도 전,

결국 '마왕'이라는 재앙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어느 방랑자의 일기 -

더글라스 :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마을은 불타고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난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마왕군은 우리를 유린했고 학살했다. 난 농들에게 검 한번 휘두르지 못했다.’

‘기둥에 묶여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어갔다. 난 소리밖에 지를 수 없었다.’

‘평생의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 떠나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그렇게 난 세상을 잃었다.’

## PROJECT\_DT SCENARIO

### # 칼스 샤이어 폐허

생명의 계절이 끝나고 다시 겨울의 바람이 달을 것 같은, 가을의 끝이 다가오는 계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푸른 잎과 낙엽이 공존해 있다.

드넓은 황금빛 평원의 끝에 위치한 ‘셀’산은 초록색과 황금색이 섞인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산아래에는 언젠가는 사람이 살았었던 것 같은 폐허가 자리잡고 있었다.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한 오래된 폐허에 초대받지 않은 한 노인, 카론이 방문해 있었다.

무너진 집들과 상점들은 이미 넝쿨에 덮여진지 오래였고, 개미 하나 살지 않는 듯한 고요한 마을에는 카론의 비명만이 울려 퍼졌다.

카론 : (놀라 뒤로 넘어지며) “에그머니나! 이게 뭐여!”

마을의 광장에서 잡동사니가 쌓인 수레를 끌던 카론은 쓰러진 기둥에 몸이 묶인 한 소년을 발견했다.

손에 들던 지팡이와 함께 반대편 손은 허리춤에 차고있던 녹이 쓴 검을 뽑아들었고, 천천히 말에서 내린 뒤 조심스레 소년에게 다가갔다.

한참 자란 것 같은 넝쿨과 많이 쌓인 흙먼지, 그리고 어깨에 핀 꽃들로 보아 얼마나 오랜시간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지 상상해볼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카론 : (소리치며) “이봐! 살아있는 겐가?! 아니면 괴물인가?!”

노인은 거리를 두고는 지팡이로 소년의 몸을 이곳저곳 찔러보았지만, 소년은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어깨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꽃만이 소년이 숨은 쉬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노인은 소년이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소년이 아닌 다른 ‘무언가’인지 확인하기위해 한걸음씩 소년을 향했다. 넝쿨과 흙먼지를 걷어내자, 어딘가를 바라보는지 모를 공허한 눈으로 단지 숨만 붙어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 온전히 들어났다.

검보라색의 머리카락이 발끝에 닿을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정도로 자라나 있었다.

웃은 썩고 닳아 더이상 웃이라 부르기에다 민망했고, 웃에서 나온 벌레들을 소년의 피부를 기어다녔다.

그럼에도 온전히 들어난 소년의 몸은 신기할 정도로 하얗고, 생기가 돌고 있었다.

카론 : (안심하는 듯 한 목소리로) “사람....인겐가...?”

## PROJECT\_DT SCENARIO

카론은 소년의 구속하던 끈을 잘라내고 덩쿨과 흙먼지를 걸었지만, 소년은 여전히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카론 : (더글라스는 보고 약간 놀란듯한 말투로) “신기하구먼...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리 없을 터인데...자네...무슨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주겠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영혼이 없는 듯한 소년은 당장 대답을 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였기에, 한참을 고민하던 노인은 자신의 수레로 향했다. 그리고는 몇가지의 가방을 꺼내오더니, 소년의 옆에 짐을 하나 둘씩 풀기 시작했다.

카론 : (허탕하게 웃으며) “곧 죽을 노인이 궁금한건 못참거든! 자네가 내킬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네!”

폐허의 황금빛이 걷히고, 어둠이 찾아왔다.

노인은 소년에 옆에서 소년을 묶었던 나무기둥과 넝쿨을 모아 불을 붙이고, 담요를 꺼내 스프를 만들고 있었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소년을 이따금씩 곁눈질로 바라보았지만, 대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보였다. 그렇게 노인은 먼저 입을 열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카론 :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서 그때 내가 놈의 엉덩이를 걷어 찼지! 꺄꺄꺄!”

카론은 말을 멈추고 더글라스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

해는 모습을 숨겼지만, 아직은 밝은 황혼의 시간.

노인의 식사가 끝나갈 때즈음에는 스톱은 온기를 잃고 쌀쌀한 밤날씨의 싸늘함을 담고있었다.

노인은 그렇게 조용히 한마디만을 덧붙였다.

카론 : (진지한 말투로) “자네...불사자인 겐가...”

그 순간 소년의 어깨가 조금 움직였다.

아주 살짝, 어깨에 있을 나비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작은 떨림이었지만, 노인은 소년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카론 : (진지한 말투로) “그런 겐가...한명 있었지...오랜 친구였지만 말이야...허허...이제 죽었으니 불사자가 아니겠지만 말이야...허허”

## PROJECT\_DT SCENARIO

노인의 말에 소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만을 들어올렸다.

그때 처음으로 노인은 소년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

식어버린 스튜보다도 차갑고, 고요한 폐허보다도 공허한 소년의 눈 깊은 곳에는 어떤 감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오랜시간 수많은 사람을 만났었던 노인은 소년의 눈만을 보고 어느정도는 알 수 있었다.

타인을 향한 복수인지, 자신을 향한 원망 인지, 혹은 그 둘다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 감정은 부정을 담고있는 눈동자였다.

카론 : (진지한 말투로) “죽이고 싶은, 아니면 죽고 싶은 눈이구먼.”

벌써 40년은 지난 이야기일세. 참으로 신비로웠지.

죽지 않는다는 것 말이야.

허나 편지 하나를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네.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더군. 그는 평생을 죽을 방법을 찾아다녔어.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다가도 친구를 잃는다니 아쉽더군.”

소년이 몸을 일으키려는 듯이 보이자 카론은 마지막 스프를 입에 털어넣고 이야기를 마저했다.

카론 : (진지한 말투로) “기대하지 말게. 거기에 방법따위는 적혀있지 않았어”

더글라스가 인상을 찡그리며 다시 쓰러지자 카론은 소년을 보고 가볍게 웃었다.

카론 : (가볍게 웃으며) “실망했나? 허허. 근데 그거 아냐, 소년? 그 자는 결국 찾아낸 거야. 평생을 죽지못하는 몸으로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받으며 찾아다녔겠지.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 자네는 어떨하겠나? 여기서 가만히 썩어갈텐가?”

소년의 반응이 없자 카론은 더이상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이 수레에서 침구류를 꺼내 모닥불 옆에 깔았다.

그리고 밤에 올 짐승들에 대비해 모닥불에 장작을 덧대고는 그대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노인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소년은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카론 : (가볍게 웃으며) “가만히 있으면 자네의 세상은 멈춰있을 걸세. 당연하지. 나 빼고 세상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한들, 본인이 가만히 있다면 어찌 바쁜 세상이 자네를 데려가 주겠나?

세상은 자네를 챙겨줄 만큼 여유롭지 않아. 그저 그 자리에 두고 갈 뿐이야.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얻은 교훈이지.”



## PROJECT\_DT SCENARIO

세상이 깊은 잠에 들 시간.

모두가 잠에 들어 움직이지 않을 때,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쳤다. 팔다리가 부러지도록 묶여있던 탓에 소년의 몸은 마음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졌다.

두 다리로 서있기는 커녕, 짐승처럼 네 발로 서있는 자세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소년은 그렇게 한발자국씩 모닥불을 향했다.

타오르던 모닥불의 불씨가 힘을 잃어갈 때 즈음에 모닥불에 도착했다.

손을 뺀 소년이 잡은 것은 노인이 육포를 썰던 작은 과도였다.

손가락보다는 조금 긴 날을 가진 과도를 잡고서야 소년은 하늘을 보며 누울 수 있었다.

밤하늘의 별이 다 보이면서도 곧 아침을 알리는 듯 했다.

여명의 하늘에 수많은 별만큼이나 수많은 생각을 하는 듯한 소년은 천천히 과도를 든 손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손틈사이로 피가 뿜어져나오고, 소년은 극심한 고통에 정신을 잃을 듯 했다.

하지만 심장에서 과도를 뺐아내 다시한번 심장을 찔렀다.

그렇게 자신의 심장을 몇번이고 내려찍고 비틀었다.

소년의 피는 땅을 타고 흘러 얼마남지 않은 모닥불의 불씨를 잠재웠고,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을 즈음에야 비로소 소년의 움직임도 멈추었다.

소년은 자신의 몸에 피가 얼마 없음을 느끼며, 조용히 죽어갔다.

소년 : (비명을 참으며) “크으.....크으으....”

노인이 일어났을 때, 주변은 피에 절여져 있었다. 건조한 날씨 덕에 흠뻑려진 피가 말라 검붉은 얼룩들이 주변에 널려있었고, 노인이 어젯밤 닭다 만 잠동사니에도 피떡이 묻어져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년이 서있었다.

부러진 팔다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히 붙어있었고, 상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몸이었다.

카론 :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이거 난리도 아니었구먼. 불사자들은 늘 그런 식인가?”

소년이 발걸음을 옮기려하자 카론은 다급히 더글라스를 불렀다.

카론 : (차분한 말투로) “자네...떠나려는 겐가...그렇다면 내 선물을 하나 주지...기다려보게”

## PROJECT\_DT SCENARIO

카론은 자신의 마차에서 옷과 검 한자루, 그리고 가방 하나를 꺼내와 더글라스에게 건넸다.

옷의 상태는 좋지 못했으나 소년의 옷보다는 옷이라 부를 정도는 되었고, 검도 녹이 슬고 이가 좀 나간 듯 했지만 검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는 되어보였다.

가방은 무엇이 들었는 지는 모르지만 묵직한 느낌은 확실했다.

소년은 그걸 받고는 곧장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검을 뽑아든 소년은 아무말 없이 검의 날을 확인하고는 발끝에 오는 검보라색 머리카락을 잘라내었다.

다시 검집에 검을 넣고는 자신을 묶던 끈으로 이제는 허리까지 오는 머리를 영성하게 뒤로 묶었다.

부츠의 끈을 묶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영락없는 모험가의 모습 같았다.

곧장 소년은 발길을 옮겼다.

이후 소년은 단 하나의 묘를 만들었다.

땅을 일구고 돌을 옮기는 탓에 만신창이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완성된 묘는 영성하게 짝이 없었지만, 소년은 아무말 없이 묘비의 앞에 서 기도했다.

묘비에 쓰여있는 글귀따위는 없었다.

노인이 보기에 그 묘는 그저 소년이 기억하는 마을에 대한 모든 기억을 묻어두는 장소인 듯 했다.

잠시 뒤 더글라스는 카론을 등지고 떠나려 발걸음을 옮겼다.

카론 : (소년의 뒤를 바라보며)“떠날겐가.”

노인은 대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소년의 각오를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소년의 표정은 노인을 충분히 가슴뛰게 만들었다

카론 : (차분한 말투로)“자네. 가기전에 이름만 알려주겠나? 불사자 친구의 이름쯤은 알고 싶어서 말이야.”

소년은 잠시 멈추었고, 아주 힘들게, 떨어가는 듯한 입술을 열어 소리를 냈다. 낙엽이 바람에 부딪치는 소리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노인의 눈에는 들어왔다.

더글라스 : (조용한 목소리로)“더글라스....더글라스 리벨리오”

카론은 멀어져가는 더글라스의 뒷모습을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카론 : (호탕하게 웃으며)“크하하. 잘가게! 더글라스여! 부디 자네가 바라는걸 찾길 바라겠네!”

노인은 멀어져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낙엽보다도 약하고 겨울의 바람보다도 쓸쓸한 뒷모습이었지만 소년에게도 언젠가 봄날이 오리라 기도했다.

## Chapter 1 : 빛이 밝을 수록 어둠은 짙어진다.

[목차](#)

---

### # 셀 숲 깊은 곳 (필드)

아직 날이 밝지않은 새벽, 더글라스는 마치 죽은 숲과 같은 셀 숲을 거닐고 있었다.

오랜만에 칼스 샤이어를 벗어난 것이라 길이 바뀌진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문제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

어두운 새벽이라 걷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천천히 걷는다면 날이 밝기전엔 나갈 수 있을 듯 했다.

하나 신경쓰이는 것은 있었다.

아까부터 들리던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더글라스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다.

떠났던가.

찾아왔던가.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는 법이었다.

몸의 긴장감이 발 끝에 달았을 때, 늑대 한마리가 풀숲에서 나와 더글라스를 향해 돌진했다.

간신히 몸을 피해 맞지는 않았지만, 늑대 한마리를 뒤로 두마리가 더 나타났다.

늑대는 더글라스를 향해 짓었고, 더글라스는 노인이 준 검을 뽑아들었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어쩔 수 없나...”

몇번이나 늑대의 이빨이 몸을 관통했는지 세어보지는 않았다.

죽지않는 몸. 그것 하나만을 믿고 늑대 무리가 싸워갔다.

다행히 해가 뜨기 전, 늑대 무리를 잡아낼 수 있었다.

허나 죽지 않는 몸에도 육체적 피곤함은 어쩔 수 없었다.

간신히 길을 가던 더글라스는 적당한 평지를 찾아낼 수 있었고,

칼스 샤이어에서 준 카론의 가방이 떠올랐다. 얼핏 확인했을 때, 캠핑을 할 도구가 있었기에 잠시 몸을 쉬었다.

잠을 잔 것은 아니지만, 몸의 회복을 기다릴 충분한 시간이었다.

동이 트는걸 확인한 더글라스는 다시 일어나 숲의 초입으로 향했다.

### # 셀 숲 초입 (필드)

늑대 무리 외에도 꽤 잡스러운 마물들을 만나 싸우며 겨우 숲의 초입에 도착하는데 성공했다.  
일반 모험가라면 진작에 죽었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더글라스는 불사자기에 그저 죽음을 몇 번 반복했다.  
다행히 해가 떴고 이제서야 셀 숲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숲을 가로지르며 도착한 셀 숲의 초입은 슬슬 평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된 전쟁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녹슨 갑옷을 입은 유골들과 쓰러진 발리스타, 군데군데 해골들도 밟혔다.  
시간이 지났는지 골장 부러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꽤 많은 해골들이었다.  
이곳에서 작은 전투가 있었던 것인지, 인간 외에도 다른 종족의 해골들도 보였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이건...꽤 시간이 지난 것 같군...”

??? : (아파하는 듯한 목소리로) “크윽!!!”

??? : (몬스터의 괴성) “스으으악!!!”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소리가?”

비명소리가 들린건 눈 앞에 평지가 보일 때였다.

더글라스가 걸어온 길과는 반대되는 길, 더글라스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에 몸을 숨겨가며 다가가니,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비늘과 붉은 눈, 작은 성당정도는 감쌀 것 같은 몸의 길이, 그리고 사람 하나는 집어삼킬 거대한  
입은 뱀이 산의 왕인 바실리스크임을 말해주는 듯 했다.

그리고 바실리스크와 대치하는 건 밝은 빛을 내며 맹렬히 싸우는 한명의 여기사였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저건...”

순간적으로 여기사와 더글라스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보았던, 그리고 아픈 기억이 머리를 짓눌렀다.  
운이 나쁜건 그 짧은 시간에 바실리스크의 시선도 더글라스를 향했다는 것이었다.

더글라스를 본 바실리스크는 그를 향해 괴성을 질러댔다.

바실리스크 : (몬스터의 괴성) “스으으악!!!”

더글라스 : (당황한 목소리로) “젠장...어쩔 수 없나...”

## PROJECT\_DT SCENARIO

보는 이를 굳게 만든다는 바실리스크의 사안이 왜 그러한지 알 것같은 순간이었다.  
자신이 불사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본능적으로 더글라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정적이 흐른다.

들리는 소리는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와 소름끼치는 뱀의 소리 뿐이었다.

들고있는 검을 더 강하게 쥐었지만, 이것이 통할리 없다.

허를 널름거리며 바실리스크가 천천히 다가온다.

자신이 저 놈에게 삼켜졌을 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놈의 뱃속에서 녹아내리는 고통을 받아야한다.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공포였다. 그리고 그 공포가 더글라스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듯 했다.

여기사 : (더글라스를 향해 소리치며) “도망쳐!!!”

순간이었다. 여성의 외침이 더글라스의 귀에 들어왔다. 여기사는 망설임 없이 바실리스크의 머리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바실리스크가 흔들리고, 여기사의 다음 공격이 이어졌다.

허나 바실리스크의 단단한 피부는 쉽사리 뚫리지 않았다.

더글라스도 도망치지는 않았다. 손에 쥔 검을 강하게 움켜쥐고 바실리스크를 향해 달려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 까.

바실리스크와 여기사, 그리고 더글라스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다.

점점 상처가 생기는 바실리스크의 비늘 사이로 검을 휘두르고 찔러넣어 데미지를 줄 수는 있었다.

허나 바실리스크가 지치는 것보다 여기사와 자신이 지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았다.

더글라스 : (숨을 헐떡이며) “젠장...무슨 방법이...”

그 순간 더글라스의 눈에 들어온 건 한 쓰러진 발리스타였다.

옛 전쟁에 사용되어 많이 녹슬긴 했지만 쓸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바실리스크의 시선이 여기사를 향한 순간, 더글라스는 발리스타를 향해 달렸다.

온 힘을 다해 발리스타를 밀어세웠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사 : (고통스러워하며) “끄흑!”

전사의 비명이 울려퍼지지만, 더글라스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발견한 나무상자를 검으로 내리쳤다.

## PROJECT\_DT SCENARIO

튼튼한 나무상자를 손에 멍이들도록 내려치자 부숴져 틈이 생겨났다,  
망설이지 않고 부쉘 틈을 잡아 당겨나갔다.  
날카로운 나무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에 젖어들어갔지만, 더글라스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그리고 마침내 발리스타용 대형화살이 나무상자의 틈속에서 빛을 바랬다.  
피로 흥건해진 손으로 한발을 꺼내 겨우 발리스타에 끼워넣었다.  
밧줄을 당겨 화살을 고정시키고, 방향을 돌려 바실리스크를 향하게 했다.

이제 문제는 저 놈의 움직임이다.  
미친듯이 움직이는 바실리스크를 맞춘다는 건 절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방법은 바실리스크가 자신을 보게끔, 자신에게 향하게끔 하는 것이다.  
바실리스크와의 거리를 생각하면, 다가오는 동안 한발은 더 쏠 수 있다고 생각한 더글라스는 바실리스크를 바라보았다.  
여기사는 검으로 겨우 몸을 지탱하는 수준이었고, 바실리스크는 승리를 직감한 듯 천천히 여기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더글라스는 천천히 바실리스크를 겨냥해 신중히, 한발을 쏘았다.  
처음 쏘아보는 발리스타인지라 몸을 관통하지는 못했지만, 몸통에 스쳐, 큰 상처를 만들어냈다.  
바실리스크 : (고통스러워하며) “샤아아!!!”

고통에 몸부림 치던 바실리스크가 더글라스를 바라보았다.  
침착하게 다시 한발 장전하기위해 대형 화살을 끼웠지만, 놈은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입 안에 무언가를 모으는 듯 했다.  
보라색의 독이 입의 틈새로 새어나온다.  
더글라스는 당황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잡아당기는 발리스타의 줄은 피로 젖어들어갔고, 더글라스도 온몸이 땀과 피로 젖어들어갔다.  
곧 바실리스크의 괴성과 함께 독안개가 더글라스에게 폭풍처럼 몰아쳤다.  
바실리스크 : (분노한 듯) “샤아아아!!!”

눈을 감고 숨을 참아보지만, 상처의 틈새로 독이 스며드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온몸의 피의 흐름이 멈춰가고, 정신이 아득해진다. 피부가 녹는 고통은 말로 이룰수 없었고, 차라리 죽고싶을 심정이었다.

## PROJECT\_DT SCENARIO

그렇지만 더글라스는 천천히 발리스타의 방향을 돌렸다. 놈의 머리가 있는 곳으로 화살의 끝을 조준하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방아쇠를 당겼다.

더글라스 : (힘겨워하는 목소리로) “이거나...받아라!!!”

바실리스크가 쓰러지는 것, 그리고 여기서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

그것이 더글라스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 # 셀 숲 초입 캠핑 공간. (필드)

불타는 칼스 사이어.

비명을 지르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나’를 향해 웃는 ‘벨라 리벨리오’

악몽에 정신을 차렸을 땐, 밤하늘의 풍경이 보이고 모닥불 타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은 가벼웠다.

상처의 아픔도, 독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은 아주 가벼운 몸, 다시한번 부활을 한 듯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모닥불 옆에서 불을 피고있는 여기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서야 가까이서 그녀를 보는 듯 했다.

불 앞에 앉아있는 그녀는 놀란 듯이 더글라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는 듯한 그녀를 대신해 더글라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놈은...죽은건가...?”

여기사 : (차분한 목소리로) “응...덕분에...살았어. 고마워.”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네가 날 여기까지?”

여기사 : (차분한 목소리로) “맞아...일단 힐로 치료할 수 있는 곳까진 치료했어.”

‘힐’, 치료 마법. 쓸 수 있는 자가 드문 마법이다.

마법진도 어려울 뿐더러 치료 마법을 쓸 수 있는 마력은 많지 않다.

아마 눈 앞에 있는 여기서의 ‘선택받은 마력’일 것이라 더글라스는 생각했다.

여기사 : (차분한 목소리로) “미안해. 불사자...맞지...?”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본건가.”

더글라스는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

오래전, 불사자임을 들켜 영주에게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

## PROJECT\_DT SCENARIO

그는 죽지않는 몸을 부러워했고, 가지고 싶어하였다.

그렇게 수많은 고문과 실험을 당했다.

더글라스의 불편한 표정을 보아서일까, 여기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난 페르시 문 프림로즈야. 괜찮다면 같이 마을에 가지 않을래?”

페르시의 목소리와 표정에 악의나 다른 뜻은 없는 듯 했다.

더글라스는 일단 그녀의 말에 답하기로 했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난 더글라스...마을? 근처에 마을이 있어?”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넌 루베차 마을에서 온게 아니야? 상관은 없지만 보답을 하고 싶어!”

더글라스는 곰곰히 생각했다.

마왕군의 침공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하물며 칼스 샤이어를 나와 본 적도 많이 없어 주변에 마을이 있는지도 모른다.

당장이라도 정보를 모아야하는데에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 그녀의 호의를 받기로 하였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도록 하지”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그래! 그럼 좀 쉬고 이동하도록 하자!”

더글라스 : (작은 목소리로) “지나치게 밝은 성격인데...”

그녀의 밝은 표정과 말투가 되려 불사자인 것을 들키는 걱정보다는 앞으로의 여행이 피곤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 # 셀 숲 초입 (필드)

아침이 밝고,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준비를 마치자마자 발걸음을 옮겼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아침이야! 조금만 가면 루베차 마을이니까! 가자!”

더글라스 :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신난건가?”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이 앞에 벨른 가도만 지나가면 루베차 마을이야!”

### # 벨른 가도 (필드)

벨른 가도 걸은지 한참이 지났다.

그 사이, 더글라스는 페르시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불사자인 것을 들켜서 경계한다기 보다는 정말 할 얘기가 없었다.



## PROJECT\_DT SCENARIO

오랜 시간 묶여있어서는 아니고, 더글라스는 원래 말주변이 없었다.

그렇기에 먼저 입을 연건 페르시였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더글라스는 왜 모험을 떠나는 거야?”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꼭 알아야 되는건가?”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그냥! 모험을 떠나는데 다들 이유가 있으니까?! 꿈이라던가? 아니면 돈이라던가?”

페르시의 집요한 집착에 더글라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 악의가 없는 것은 맞는 듯 했다.

여기서 말을 하지 않으면 더 귀찮을 것 같아 더글라스는 마저못해 말을 꺼냈다.

더글라스 : (조용한 목소리로) “...죽으려...이 지긋지긋한 불사의 저주를 끝내러 가.”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앗...그....왜인지 물어봐도 돼?”

더글라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입밖으로 내어 다시 악몽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조용히 둘은 걷기만을 반복했다.

페르시의 혼잣말이 들린건 시간이 좀 지나서였다.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죽지 않는다라...내가 그랬다면....우리 부모님도...앗 미안! 이건 혼잣말인데...”

그녀의 말에 별 감흥은 없었다.

옛 영주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아닌 마냥 어린아이같은 소녀의 혼잣말이었으니까.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괜찮다.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후에 페르시는 더글라스에게 미안했던 것인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침묵이 유지되었다.

그녀가 갑자기 더글라스의 앞을 막기 전까지.

페르시가 갑자기 더글라스의 앞을 막아서며 더글라스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돌발행동에 더글라스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뇌가 따라가지 못한 듯 했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내가 도와줄게!”

더글라스 : (당황한 목소리로) “무..무슨 말이야?”

## PROJECT\_DT SCENARIO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거든!”

더글라스가 페르시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는 않았다.

귀찮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소중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더글라스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은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었으니까.

더글라스 : (진지한 목소리로) “미안하지만 사양하지. 더이상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지 않아”

하지만 페르시는 더글라스의 표정을 살피고는 다시한번 더글라스의 손을 마주 잡았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네가 사연이 있는건 알것 같아! 그렇지만 어제 바실리스크처럼 강한 적을 만나면 곤란하지 않을까?!”

더글라스는 페르시의 말에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감고 이마를 찡그렸다.

어찌 이 어린 아이는 사람의 말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순진 무구하고 착한 아이인걸까.

더글라스 : (생각하는 표정으로) “흐으으음....”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잘 생각해봐! 바실리스크한테 삼켜지면 영원히 소화되는 고통일거야!!”

바실리스크와 대적했을 때 더글라스가 느꼈던 공포를 그대로 말하니 나름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더글라스 : (당황한 목소리로) “너...밝은 표정으로 그런말을 하는거냐...”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그치만! 사실인걸?!”

더글라스는 자신을 향해 밝은 미소로 바라보는 페르시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이상 안된다고 해봤자 순순히 물러날 아가씨로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더글라스는 한숨을 내쉬고는 아까와는 다르게 페르시의 손을 조심히 잡고 내려놓았다.

더글라스 : (포기한듯한 목소리로) “알겠다... 도움 받도록 하지...”

더글라스의 말에 페르시는 더 밝은 미소를 지었고 더글라스는 그런 페르시를 애써 무시하고 앞으로 향했다.

## # 루베차 마을 (마을)

더글라스가 본 루베차 마을의 첫인상은 신기함 그 자체였다.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책에서만 본 인간이 아닌 종족들이 보였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여러 종족이 섞인 모험가 무리, 분수에서 쉬는 마을 주민들은 이곳이 얼마나 평화로운 곳인지 보여주는 듯 했다.

## PROJECT\_DT SCENARIO

더글라스는 주변을 놀란듯이 둘러보고 페르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있었다.

어느정도 마을을 구경하자 페르시는 더글라스의 팔을 잡았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일단 의뢰소로 가볼까? 의뢰를 갔다오면 반드시 가야하거든!”

더글라스는 일단 이 거리감 없는 아가씨를 따라가기로 했다.

### # 루베차 마을 내 의뢰소 (마을)

의뢰소에 도착한 페르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말을 끊임없이 해나갔다.

더글라스는 다 이해는 못했지만 이곳이 의뢰를 받고 수행하는 것이란건 이해했다.

설명을 마친 페르시는 뿌듯한 듯 미소를 지었고, 더글라스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냈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더글라스는 무슨 등급이야?”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등급...? 난 그런거 없다..”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앗! 그럼 모험가 등록부터 해야돼!”

더글라스 :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 난 됐...!”

페르시가 더글라스의 손을 잡고 끌며 접수원에게 향했다.

더글라스는 자신이 죽을 방법을 찾기도 전에 기가 빨려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다.

### # 루베차 마을 (마을)

지쳐보이는 듯한 더글라스와 밝은 표정으로 웃는 페르시가 의뢰소의 문 앞에 서 있다.

마치 신이 난 딸과 딸의 체력을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았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이제 브론즈니까! 골드인 날 믿으라구!”

더글라스 : (기운빠진 목소리로) “난...그런거 필요 없다니까...”

페르시는 접수원에게 받은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T)**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바실리스크의 독니로 정산가가 10,000리프나 나왔어! 그럼 이걸로 잠깐 마을을 구경해볼까!”

더글라스도 마을 구경에는 흥미가 있었다.

칼스 샤이어랑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흥미가 있었다.

페르시가 안내한 곳은 ‘포션 상점’, ‘대장간’, ‘잡화상점’이었다.

## PROJECT\_DT SCENARIO

바실리스크로 인해 망가진 옷과 검 대신 가죽 갑옷과 새로운 검을 사고, 여행에 필요해 보이는 물건들도 더 구비했다. 가게에 갈 때마다 이어지는 페르시의 밝은 설명은 덤이었다.

더글라스는 그렇게 밝은 그녀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더글라스 : (기운빠진 목소리로) “원래 그렇게 성격이 밝은가?”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흐흐! 난 언제나 밝은 모습이라구?!”

더글라스 : (기운빠지고 목소리로 아주 작게) “하아...그냥 혼자 다닐 걸 그랬군...”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정말 모른다는 듯) “응?! 뭐라고 했어?!”

이후에 페르시의 안내로 마을을 더 구경하고 결국 더글라스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 앉았다.

페르시도 그제서야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일단은 이정도만 할까! 별일 없으면 이제 쉬러가볼까?”

더글라스는 슬슬 이 아가씨를 바꾸기 보다는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했다.

## # 루베차 마을 내 여관 (마을)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었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침대에 온 몸은 녹듯이 침대에 밀착했다.

창 밖으로 들리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여관방에 울렸다.

그들의 목소리마저 잠잠해 질 때까지 둘은 아무 말도 섞지 않았다.

각자가 누워있는 침대의 간격은 오늘 잡았던 바실리스크의 길이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다.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저기...더글라스...자?”

페르시가 입을 연 것은 고요한 새벽이 찾아온 직후였다.

정적을 깬 페르시의 말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더글라스의 어깨를 작게나마 흔들었다.

눈을 감으면 찾아올 것 같은 악몽에 더글라스도 잠에 들지 못했지만,

피곤한 아가씨의 말에 대답하기는 망설임이 찾아왔다.

그렇지만 이전과는 다른 아가씨와의 목소리에 더글라스는 입을 열기로 했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일이지? 잠이 안오는가?”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그냥... 잠이 안오네... 히히”

다시 찾아온 정적, 이번엔 더글라스가 먼저 입을 열기로 했다.

입을 이미 열어버린 이상 페르시를 빨리 재우는 쪽이 나을거라 생각했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그럼 말이라도 나눌까.”

## PROJECT\_DT SCENARIO

페르시 : (기분 좋은 듯한 목소리로) “정말?! 고마워!”

평범한 대화였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무엇이 맛있었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서로를 알아가는 듯한 대화, 더글라스는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어째서 이 아가씨는 여행길에 올랐는지.

이처럼 밝고 순수하고 새장 속 작은 아기새 같은 아가씨가 왜 자신을 돕는지.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나한테 물었었지. 어째서 여행하냐고. 너는 왜 여행을 하지?”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 여행을 떠나래.”

더글라스 : (궁금한 목소리로) “훌륭한 사람인가...”

페르시 : (실소하는 듯한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나도 잘 모르겠어.”

페르시의 대답은 정말 어린아이 같았다.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어린아이.

둥지 속 아기새는 왜 자신이 둥지를 벗어나야 하는지 모르는 듯 했다.

더글라스는 아마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저 천진난만한 아가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격려 뿐이라 생각했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걱정 하지마라. 넌 분명 될 수 있을거다.”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고마워...그럼 이제 잘까?”

그렇게 페르시는 조용히 잠들었다.

몸을 돌려 페르시의 얼굴을 바라본 더글라스는

언젠가 보았던, 안심한 듯 잠든 표정을 보며 조용히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밤을 지냈다.

## # 루베차 마을 여관 (마을)

아침이 밝아오고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여관을 나섰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일단 정보를 얻으러 의뢰소로 가볼까!”

어젯밤의 조용하던 페르시는 아침이 되자마자 밝은 모습을 되찾은 듯 했다.

애써 슬픔을 감추려는 것인지 밝은 모습을 보이는 페르시가 대견해 보이기까지 했다.

더글라스도 오늘은 그저 페르시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 PROJECT\_DT SCENARIO

### # 루베차 마을 내 의뢰소 (마을)

의뢰소에 도착한 더글라스는 게시판에 붙어있는 검은 종이에 흰색 잉크로 쓰여진 의뢰지가 눈에 들어왔다.

의뢰지에는 ‘공백 : 모리아산의 드워프 광산에서 마왕의 흔적을 조사’라 쓰여있었다.

다른 종子和는 다르게 검은 종으로 쓰여있는 것도 눈에 띄었지만, 더글라스의 눈길을 끈 것은

‘마왕’이라는 글자 때문이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더글라스를 깨운건 페르시였다.

페르시 : (진지한 목소리로) “그건 안하는게 좋아. 돌아온 사람이 없어”

더글라스 : (궁금해하는 목소리로) “공백이 뭐지?”

페르시 : (진지한 목소리로) “지도에 없는, 말그대로 공백.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장소라는 거야”

더글라스는 다시 의뢰지를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왕’.

내 삶을 박살내고 사랑하는 연인을 빼앗아간 자.

결국 더글라스는 의뢰지를 뜯어냈다.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안된다니까! 너무 위험해!”

더글라스 :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있는 느낌이야...”

페르시는 수상하고 불길한 의뢰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미소를 지은 더글라스를 보며 결국 포기하기로 하였다.

페르시 : (한탄하는 목소리로) “하아... 그래...알겠어...”

### # 카빌 가도 (필드)

둘은 루베차 마을을 벗어나 모리아 산으로 가기위한 카빌 가도를 향했다.

가을의 끝, 점점 차가워지는 바람과 옷을 잃은 나무들이 펼쳐진 주황빛 길은

곧 찾아올 겨울을 준비하는 듯 했다.

더글라스는 길을 가는 중간에도 의뢰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마왕’.

단 한번도 마주친 적 없는 자에게 더글라스는 모든 것을 잃었다.

마왕군의 침공 이후 묶여만 있어, 이 자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다.

대강적으로 알아낸건 분명 ‘죽었다.’ 정도.

더글라스 : (궁금해하는 목소리로) “마왕이 죽은지 얼마나 되었지?”

페르시 : (생각하는 듯한 목소리로) “아마...흠...마지막 마왕이 죽은지 100년은 지났을걸?”

## PROJECT\_DT SCENARIO

더글라스 : (궁금해하는 목소리로) “마지막 마왕? 한명이 아니었나?”

더글라스는 진심으로 놀랐다.

‘마왕’이라는 자가 한명이 아니었다니.

이렇게 되면 자신의 마을을 침공한 ‘마왕’이 누구였는지 알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몰랐어?! 한 두명이 아닌데?! 역사책 좀 읽어! 더글라스!”

더글라스 : (조용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마왕은 한명이 아니었나...”

## # 두린의 길 (필드)

낡은 이정표가 ‘두린의 길’을 가리켰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길은 잘 가는 듯 했다.

허나 루베차 마을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했다.

태양이 대지와 맞닿을 것 같은 순간, 다행히 텐트를 칠만한 평지가 보였다.

이전 누군가도 이곳에서 캠핑을 했는지 불에 탄 장작과 파여진 흙들이 눈에 들어왔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와! 우리 잠깐만 쉬고가자!”

밤에 활동량이 많은 마수들이 대체로 흥폭한 편이기에,

더글라스도 페르시의 말을 들어 잠시 쉬고가기로 하였다.

아침이 밝아오고 반나절 정도를 걸어간 끝에 드디어 입구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공백 - 모리아산’

시간이 지났는지, 글씨는 거의 지워졌고 나무도 낡았으나 그만큼 그 팻말이 주는 경고는 강렬해 보였다.

하지만 더글라스에게 망설임은 없는 듯 했다.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바실리스크에게 겪은 고통은 기억만으로도 온 몸에 되살아 나는 듯 했다.

단지 더글라스에게는 죽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기에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페르시는 그런 더글라스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갔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가볼까...”

페르시 : (겁에 질린 목소리로) “으으...이게 맞는걸까...”

## #모리아산 (공백)

산에 들어와서 곳곳에 흔적을 보면 바실리스크가 있었던 쉼산처럼 전쟁이 있었던 듯 싶었다.

허나 장비의 부식정도나 규모를 보면 훨씬 오래전에, 훨씬 큰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글라스는 천천히 산길을 걸었다.

## PROJECT\_DT SCENARIO

모험가라도 만날까 싶었지만, 산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 PROJECT\_DT SCENARIO

이따금씩 야생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떤 무언가가 있는지는 상상도 되지 않았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전쟁의 흔적인가... 상당히 참혹하네...”

페르시 : (차분한 목소리로) “모리아산에선 드워프랑 마족이 꽤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웠다고 해.

드워프 종족은 견고한 방어로 소문이 자자하니까. 그런데 모리아 산은 한 순간에 패배했어.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앞서가던 더글라스는 이따금씩 오래전 전쟁때 사용한 함정에 몇번 걸리기도 했다.

페르시 : (다급한 목소리로) “위험해!!”

더글라스 : (놀란 목소리로) “갑자기 왜...!”

페르시가 몸을 던져 더글라스와 함께 넘어졌다.

그리고 더글라스가 서있던 위치로 거대한 바위가 스쳐 지나가며 뒤에 있던 나무를 박살내버렸다.

그걸 본 페르시와 더글라스는 놀라고, 더글라스는 페르시에게 소리쳤다.

더글라스 : (화난 목소리로) “어차피 난 불사자다! 네 몸부터 챙겨!”

페르시 : (당황한 목소리로) “그...그치만...”

더글라스는 진심으로 페르시를 혼냈다.

자칫 잘못하면 페르시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만난지 얼마 안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대견한 것은 맞지만,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울것같은 페르시가 아무말도 못하자 결국 더글라스는 페르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금 해야할 말은 분노가 아니란 것을 더글라스도 깨달았다.

더글라스 : (조용한 목소리로) “고...고맙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응!”

허나 정말 위험한 것은 이런 함정들이 아니었다.

‘쿵!쿵!쿵!’

무언가가 걸어다니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갔다.

무시하기에는 근처의 소리이며 언제 뒤에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한번 확인을 하기로 했다.

천천히 나무와 풀숲에 몸을 숨기며 이동하니 ‘트롤’이 모습을 들어냈다.

커다란 몸집과 엉거주춤한 걸음걸이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듯 했다.

## PROJECT\_DT SCENARIO

그들이 머리가 안좋은 것이지, 지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호기심은 있어 모험가들의 목숨을 빼앗고 소지품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덕분에 트롤의 은신처를 찾으면 예상치 못한 보물을 건진다는 소문도 있다.

허나 둘이서 트롤을 상대하기엔 벅찬 상황이다.

더글라스 : (조용한 목소리로) “저걸 굳이 상대하기는...”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거 같아...”

그렇게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이번엔 조용히 길을 돌아가려 했지만.

‘과직’

더글라스 : (놀란 목소리로) “아!”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아!”

나뭇가지를 밟아 부러뜨리는 소리, 작은 소리지만 고요한 산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위험한 소리였다.

트롤 : (괴성을 지르며) “우워어어어!”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이건...”

페르시 : (진지한 목소리로) “싸워야겠네...”

거대한 트롤의 공격은 그 몸짓만큼이나 둔했지만, 휘두르는 몽둥이를 한대라도 맞는다면 온 몸이 부러질 듯 했다.

바실리스크 만큼은 아니지만 피부도 단단해 공격이 쉽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더글라스는 바실리스크 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까의 함정 중 분명 쓸만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더글라스의 의도를 알았는지 페르시가 더글라스를 향해 소리쳤다.

페르시 : (소리치며) “저걸 쓰면 될 것 같아!”

페르시가 가리킨 방향을 자세히 보니 아까 페르시가 구해준 바위 함정과 비슷한 것이 보였다.

트롤이 더글라스를 바라본 순간, 더글라스는 도망치는 시늉을 했고 트롤은 그 뒤를 쫓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나무도 부술듯한 바위가 트롤의 안면을 강타했다.

엄청난 고통에 트롤은 괴성을 냈으나 아직 쓰러질 정도는 아닌 듯 했다.

오히려 분노한 트롤의 공격 속도는 올라갔지만, 한번만 더 강력한 한방을 먹인다면,  
분명 쓰러질 듯 했다.

## PROJECT\_DT SCENARIO

주변을 둘러보던 더글라스의 발 끝에 무언가 빈 공간이 느껴졌다.

페르시가 트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빈 공간을 재빠르게 살폈다.

생각보다 커다란 구멍 함정이었다.

대규모 무리를 잡아내는 데 사용할 크기였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이거면...”

더글라스는 함정 위로 올라섰다. 사람 한명의 무게는 건딜 듯 했다.

더글라스 : (긴장한 목소리로) “멍청한 트롤아! 이쪽이다!”

트롤의 시선은 다시 더글라스를 향했고, 머리가 좋지않은 트롤은 다시 더글라스에게 달려들었다.

더글라스는 그런 트롤의 모습에 함정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발을 헛디디고 만다.

트롤 : (괴성을 지르며) “우워어어어!”

더글라스 : (놀란 목소리로) “크흑!”

페르시 : (소리치며) “위험해!”

트롤이 함정을 밟는 순간 엄청난 굉음이 숲 전체를 울렸다.

엄청난 먼지 바람이 불고, 트롤은 함정에 설치된 수많은 가시와 창에 찔려 한순간에 생을 마감했다.

먼지바람이 걷히고 눈을 감은 더글라스는 자신의 고통을 직감했다.

죽지 않는 몸이지만, 분명 고통은 겪기에 함정에 빠져 엄청난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몸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저 손 끝에서 매우 따뜻한 기온이 느껴질 뿐이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드니 필사적으로 자신을 붙잡은 페르시의 모습이 보였다.

더글라스 :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네 몸부터 챙기라니까...”

페르시 : (밝게 웃으며) “헤헤”

페르시의 도움으로 함정을 타고 올라와 쓰러진 트롤을 바라보았다.

머리 부분에도 거대한 창이 박혀 더이상 움직임이 없는 듯 했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쓰러뜨렸나?”

페르시 :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대사...위험한거 아닐까...?”

그렇게 둘은 목적지인 모리아 광산으로 향했다.

## PROJECT\_DT SCENARIO

트롤을 처치한 곳으로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바위, 그리고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모리아 광산의 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드워프의 언어로 보이는 글자가 쓰여진 문.

그 문의 주변 역시 전쟁의 흔적이 오랜 세월 자리잡고 있었다.

문 앞에서 고민하던 더글라스에게 페르시가 소리쳤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더글라스! 이거 봐!”

더글라스가 고개를 돌리자 입구 옆에 어떤 밝은 보석과 그걸 가리키는 페르시가 눈에 들어왔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그건?”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이건 ‘세계수의 이슬’이라 그래! 모험가들이 중간에 회복할 수 있게 설치해두는 거야!”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그런건가...”

페르시의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마법을 담아두는 보석 정도였다.

의뢰소 차원에서 공백을 돌아다니는 모험가를 위해 설치해 둔다고 하는데, 만들기가 어려워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다.

‘세계수의 이슬’ 덕에 트롤과의 전투로 지친 몸을 회복한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서로를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가 끝인지도 보이지 않는 모리아 광산의 문, 페르시와 더글라스는 미지의 공간에 한걸음씩 발을 디었다.

## #모리아 광산 (공백)

문을 지나서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계단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랜턴이 없으면 발을 헛디딜 수도 있을 정도로 경사가 매우 급했지만,

페르시의 빛 마법 덕에 다행히 랜턴은 필요 없었다.

걸는 것 만으로도 지칠 거리,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계속해서 지하로 내려갔다.

페르시 : (힘든 목소리로) “언...언제쯤 도착일까...?”

더글라스 : (숨에 찬 목소리로) “저 끝에 미세한 빛이 보인다. 조금만 버텨라.”

한참을 걸어 내려온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마침내 모리아 광산의 광장에 도착했다.

## PROJECT\_DT SCENARIO

굳이 빛 마법을 쓰지 않더라도 이 광장이 얼마나 넓은 곳인지 두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천장에는 마치 밤하늘 처럼 별같은 광석들이 빛나며 광장을 비추고 있으며,  
천장을 지탱하는 높은 기둥, 잘 다듬어진 땅, 마치 밤하늘에 세워진 성과 같았다.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우와! 진짜 이쁘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게...산 안에 있다니...”

주변에는 수많은 해골들이 널려 퍼져 있었다.

이상한건 입구 주변에만 마수와 마족들의 해골이 보일 뿐,  
성의 안쪽에는 드워프의 해골만 존재한다는 거였다.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뭔가...이상해...”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수상하군. 방어에는 성공한 듯 한데...어째서...?”

인기척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깊은 밤의 숲 보다는 훨씬 고요했다.

더글라스는 의뢰지를 꺼내 내용을 살폈다.

‘난쟁이 도시의 왕, 그의 왕좌에 있는 물건’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광장의 중심부로 향했고, 큰 대로의 가운데에 섰다.

그 곳에 서자 확실히 보였다.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아마도...이 길이...”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왕을 향하는 길...”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대로의 끝, 바위를 깎아 만든 커다란 건축물을 향한 계단에 도착했다.

한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웅장한 ‘성’은 ‘왕’을 위한 자리임을 뽐내는 듯 했다.

한걸음, 한걸음, 계단을 올라갈때 마다 알 수 없는 중압감이 느껴졌다.

계단을 다 오르자 보인건 커다란 성문이었다.

성체의 드래곤도 쉽게 오갈 정도의 성문은 약간의 틈을 만들 정도로 열려있었다.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힘을 합쳐 문을 열었다.

어둠 속, 끝에는 천장의 빛을 받는 높은 왕좌가 보였다. 그리고 왕좌 앞에 무언가가 공중에 뜬 채로 반짝이며  
주위를 비추고 있었다.

빛 주위는 어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둘은 빛을 따라 한걸음씩 걸어나갔다.

## PROJECT\_DT SCENARIO

왕좌에 천천히, 한걸음씩. 묘하게 불균형인 바닥은 은근히 걸기 불편했지만, 균형을 잡아가며 한걸음씩 나아갔다.

‘찰딱...’

무언가를 밟았다. 액체와 같은 무언가. 더글라스의 온 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어째서일까, 드워프의 광산에 들어와서 단 하나의 생명체도 보지 못했다.

어째서일까, 위험이 도사린다는 ‘공백’에 하나의 위협도 없었다.

어째서일까,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다.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뭐지?! 무언가가...”

페르시가 빛 마법을 써 주변을 비추자 수많은 시체가 널부러져 있었다.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이...이건! 오래된 시체가 아니야!”

페르시는 완전히 겁에 질린 듯 했다. 공백에 들어온 이후 해골만 보았을 뿐, 살이 붙어있는 시체는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는건 지금 서있는 이곳이 바로 공백,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더글라스 : (놀란 목소리로) “페르시! 앞이다!”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저...저건?!”

왕좌 아래의 그림자에서 드워프 한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부는 썩어 문드러졌고, 한손에는 곡괭이를 든, 광부의 모습을 한 드워프는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T)** 드워프 : (조용한 목소리로) “왕을 위해...모리아를 위해...”

얼굴에는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손바닥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곡괭이는 얼마나 곡질을 했는지, 쇠붙이의 한쪽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다.

**T)**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드워프...?!”

**T)** 더글라스 : (진지한 목소리로) “언제 나타난거지...”

## PROJECT\_DT SCENARIO

드워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를 정도로 풀려있었다. 더이상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한 눈으로 그저 자리에 서있을 뿐이었다.

드워프 : (조용한 목소리로) “왕을 위해...모리아를 위해...”

페르시 : (진정한 목소리로) “...적은...아닌건가...?”

더글라스 : (진지한 목소리로) “모르겠다...”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검을 뽑아들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검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드워프 : (조용한 목소리로) “왕을 위해...모리아를 위해...”

한걸음을 더 내딛었다.

돌이 보석이 왕좌를 비추는 빛 안으로 들어오자 드워프는 더이상 중얼거리지 않았다.

그리고 빛 안으로 들어온 더글라스를 드워프의 시선이 옮겨졌다.

드워프 : (이를 가는듯한 목소리로) “왕을 위해...모리아를 위해...”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더글라스! 저 뒤에!”

더글라스 : (놀란 목소리로) “저..저건...?”

드워프의 부릅뜬 두 눈은 더글라스와 페르시를 향했고, 그는 곧 분노에 휩싸인 얼굴로 소리쳤다.

드워프의 등쪽에 있는 보석에서는 어두운 기운이 흘러나와 축수의 형태를 띄기 시작했다.

드워프 : (고통에 비명지르는 듯한 목소리로) “왕을 위해!!! 모리아를 위해!!! 그르륵고아악!!!”

보석에 흘러나온 3개의 축수가 드워프의 등을 관통했다.

드워프의 온몸이 터질듯이 팽창해갔다. 특히 그의 양 팔은 더글라스를 한손으로도 잡을 만큼 비 정상적으로 커져갔다.

더 이상 드워프가 아닌, 괴물이 되어버린 ‘무언가’는 두 팔로 대지에 서있으며 괴성을 내며 돌을 향해 분노했다.

드워프 : (고통에 비명지르는 듯한 목소리로)

“왕끄으르륵아악...위끼윽끄악크륵...모리아...으악으끼윽....위해끼으으윽아각”

페르시 : (놀란 목소리로) “무...무슨...”

더글라스 : (소리치며) “페르시!!! 온다!!!”

## PROJECT\_DT SCENARIO

‘드워프 었던 자’의 두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늘높이 올려든 주먹을 둘을 향해 내려찍었고,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간신히 몸을 던져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드워프 : (고통에 비명지르는 듯한 목소리로) “끄르륵이악!!!왕을위으그그극!!!”

더글라스가 보이지 않자 ‘드워프 었던 자’는 소리를 지르고는 빛 밖의 어둠 손을 넣고는 곧 무언가를 잡아 꺼냈다.

‘드워프 었던 자’는 죽은지 얼마 안되보이는 모험가의 시체를 둘의 방향으로 던졌다.

다행히 ‘드워프 었던 자’가 어둠을 보지 못해 맞지는 않았지만, 맞았다면 온 몸의 뼈가 부러질 정도의 속도였다.

‘드워프 었던 자’가 다시 시체를 집어들었다. 더글라스는 빛 주위의 어둠을 돌며 달렸다.

보이지 않는 시체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괴성을 내는 ‘드워프 었던 자’는 더글라스의 소리를 못듣는 듯 했다.

페르시 : (소리치며) “대체 저게 뭐야!!!”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저 보석이 무언가...”

페르시 : (소리치며) “촉수로 감싸여있어! 저걸 제거한다면!”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우선은 다리다! 팔에 비해 다리는 약해!”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빛과 어둠을 오가면서 집요하게 ‘드워프 었던 자’의 다리를 노렸다.

‘드워프 었던 자’는 가까이 다가면 큰 팔을 휘두르고, 멀리 도망치면 시체를 던져대기는 했지만 행동은 단순했다.

계속해서 발을 노린 결과 결국 ‘드워프 었던 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더글라스 :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금이면!”

페르시 : (소리치며) “촉수를 노리자!!!”

더글라스와 페르시가 ‘드워프 었던 자’와 보석을 연결하는 촉수를 공격하자 먼지가 되듯 촉수 하나가 사라졌다.

그리고 촉수가 사라질 수록 어두운 기운에 감싸여진 보석이 점점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페르시 : (소리치며) “됐어! 그렇게 하나씩 없애면 될거같아!”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저 보석이 무언가...”

그렇게 둘은 계속해서 ‘드워프 었던 자’의 다리를 노렸다.

그리고 세번째 촉수를 제거하자 ‘드워프 었던 자’가 괴성을 지르며 쓰러져 갔고, 보석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 PROJECT\_DT SCENARIO

‘드워프 었던 자’가 쓰러지는 찰나의 순간, 더글라스와 페르시가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더글라스는 두 눈을 감았다.

더글라스 : (독백) ‘강한 힘이 필요하다.’

더글라스 : (독백) ‘지키기 위해서.’

더글라스 : (독백) ‘나아가기 위해서.’

더글라스는 몸의 마력을 느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불사로 만들어 저주하게 한 ‘뿌리의 저주’.

이번 만큼은 저주가 아닌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그에 응답하듯이 검은 마력이 더글라스의 몸에서 피어오르고, 곧 더글라스의 검을 감쌌다.

페르시 : (소리치며) “지금이야! 더글라스!”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각자의 검에 자신의 마력을 실었다.

더글라스의 어둠과 페르시의 빛이 각각의 검을 감싸고, 둘은 보석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교차하며 벤 두개의 마력 검기는 하나가 되어 마치 밤하늘과 같은, 빛과 어둠의 거대한 검기로 보석을 향해 날아갔다.

페르시 : (소리치며) “디파인!”

더글라스 : (소리치며) “루미너스!”

검기와 보석이 맞닿아 엄청난 빛을 만들어냈다.

빛과 어둠의 폭발로 페르시와 더글라스도 눈을 가렸고 잠시 후 앞을 보자 ‘드워프 었던 자’가 서있었다.

페르시 : (힘들어 하며) “이런...아직인가봐...”

더글라스 : (힘들어 하며) “이걸론 안되나보군...”

그러나 곧 보석 주위의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드워프 었던 자는 가루가 되어 흩날리며 사라졌다.

찰나에 본 드워프의 얼굴은 마치 감사함과 편안함을 담은 눈물담긴 미소를 띄고 있었다.

페르시 : (지친 목소리로 주저 앉으며) “다행이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정말...해치웠나...?”

페르시 : (지친 목소리로) “그 대사...제발 하지말자...”

## PROJECT\_DT SCENARIO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떨어진 보석을 향해 다가갔다.

보석은 점점 빛을 잃어갔고, 완전히 빛을 잃기 전에 페르시가 마법을 써서 주위를 비쳤다.

완전히 빛을 잃은 보석을 더글라스가 조심스럽게 잡아 들었다.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대체 이걸 뭐지?”

페르시 : (차분한 목소리로) “우선 의뢰소로 가서 감정해볼까?”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그럼 그 전에...”

페르시 : (궁금해하는 목소리로) “응?”

페르시가 더글라스를 바라보았을 때, 더글라스는 바닥에 누워있었다.

그런 더글라스의 모습을 보며 페르시는 웃음이 나왔고 곧 더글라스의 옆에 누웠다.

더글라스 : (안심하는 목소리로) “잠깐만 쉴까...”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그럴까?”

그렇게 둘은 무사히 첫 의뢰를 마쳤다.

## # 루베차 마을 (마을)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무사히 루베차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모리아 광산의 입구에 ‘세계수의 이슬’이 있어 피로와 상처는 회복할 수 있었기에, 오는 길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다만 정신적으로 쌓인 피곤함을 풀지는 못했기에 더글라스는 잠시 쉬어가려 했지만.

페르시 : (지친 목소리에서 밝은 목소리로) “힘들었어...그럼 의뢰소로 가볼까!”

더글라스 : (차분한 목소리로) “벌써...?”

더글라스는 어차피 말을 해도 이길 것 같지 않았기에, 말괄량이 페르시를 따라가기로 했다.

## # 루베차 마을 내 의뢰소 (마을)

더글라스와 페르시가 의뢰소에 들어서자마자 로브를 입은 한 여성이 둘을 맞이했다.

머리에도 후드를 뒤집어 썼기에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으나, 손과 로브위로 들어나는 몸은 여성을 짐작하게 했다.

마녀 : (웃으면서) “반가워요! 저는, 마녀 레이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제 의뢰를 맡으신 분 맞죠?”

더글라스 : (경계하는 목소리로) “어떻게 그걸...”

레이첼 : (웃으면서) “호호. 제 의뢰를 어떤 멋진 커플이 수락해 주셨다해서 매일같이 기다렸답니다.”

## PROJECT\_DT SCENARIO

더글라스는 계속해서 마녀를 계속 견제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런 더글라스의 모습을 본 마녀는 웃으며 페르시와 더글라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레이첼 : (웃으면서) “잠시 제 집에 가서 얘기를 나누실래요?”

더글라스와 페르시는 서로 바라보았고, 우선은 레이첼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경계는 되었지만 레이첼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 보기로 한 것이다.

### # 루베차 마을 내 마녀의 집 (마을)

마녀의 집에 도착하자 온갖 마법과 주술로 관련된 물품들이 어질러 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거우 바닥의 빈 공간을 밟아 나가며 레이첼이 안내한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자리에 앉은 레이첼은 머리를 숨기던 후드를 내렸고, 후드 속에 감춰졌던 두 뿔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을 본 더글라스가 레이첼을 향해 검을 잡아 들었다.

더글라스 : (경계하는 목소리로) “너...마족인가...”

레이첼 : (미소를 띄우며)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페르시 : (다급한 목소리로) “더글라스 진정해. 마족이 있는건 드문 일이 아니니까...”

분노하는 듯한 더글라스를 페르시가 막아섰다.

페르시는 잘 모르는 듯한 더글라스에게 마지막 마왕이 사라진 이후, 마족과 연합국 사이의 협정이 있었다 말해주었다.

‘에린’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마족과의 평화를 체결하기 위해, 또다른 마왕의 등장을 막기위해 마족과의 공존이 허락되었다 말해준다.

더글라스는 검을 거둬드렸고, 레이첼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레이첼 : (웃으면서) “그럼! 결과를 볼까요?”

더글라스가 주머니에서 보석을 꺼내들었다.

레이첼은 보석을 보고 웃고는 받기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더글라스는 보석을 건내주려다 손을 거두었다.

레이첼이 의문에 찬 표정으로 더글라스를 바라보았다.

더글라스 : (경계하는 목소리로) “이건 뭐지?”

레이첼 : (웃으면서) “어머! 그런건 의뢰 보상에는 없는데요?”

더글라스 :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해라.”

## PROJECT\_DT SCENARIO

레이첼은 더글라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웃으며 손짓했다.

그러자 레이첼의 손짓에 따라 어질러져 있는 책 더미 속에서 책 한권이 레이첼의 손에 날아왔고, 레이첼 책을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레이첼 :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옛날옛날. 오래전 마족과 드워프가 전쟁을 했답니다.”

“드워프의 성은 너~무 견고해 마왕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마왕은 욕심많은 드워프 왕의 마음을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마왕은 마녀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 마녀에게 아~주 아름다운 마석을 만들게 하였습시다”

“블랙 로즈 스톤. 장미처럼 아름답지만 가시가 돋힌...아주 위험한 보석...”

“마왕은 드워프 왕에게 그걸 보냈답니다.”

“드워프 왕은 아름다운 보석을 보고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답니다.”

“허나 그는 몰랐죠. 그것이 탐욕에 찌든 자들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드워프 성은 내부부터 무너졌고, 모두 죽이는데 성공했답니다”

“작전에 성공하자 마녀는 가족을 살려달라 빌었지만 마왕은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결국 마녀는 가족을 모두 잃고 간신히 도망쳤답니다~. 끝!”

레이첼은 책을 덮었고, 더글라스와 페르시가 레이첼을 향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책을 덮은 레이첼의 얼굴은 상당히 어두웠고, 아픈 사람 같았다.

페르시 : (당황한 목소리로) “그럼...그걸 만든 사람이...”

더글라스 : (놀란 목소리로) “너는...”

레이첼 :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벌써 144년이 지난 이야기랍니다.”

레이첼의 얼굴은 수많은 감정을 보여주는 듯 했다.

고통, 슬픔, 애도 그리고 후회.

레이첼은 말없이 손을 뻗었고 더글라스는 보석을 건넸다.

하지만 보석에서 손은 놓지 않았다.

레이첼은 더글라스를 바라보았고, 더글라스는 힘들게 입을 열었다.

더글라스 : (진지한 목소리로) “이건...불사자를 죽일 수 있나?”

레이첼은 놀란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페르시와 더글라스를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보았고,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 PROJECT\_DT SCENARIO

레이첼 : (웃으며) “똑같은 질문을 한 남자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건 안된답니다. 이건 그저 탐욕의 괴물을 만드는 보석. 심지어 빛을 잃었지요”

레이첼의 말에 더글라스는 잠시 실망했으나, 그녀가 마녀라는 사실에 희망의 끈을 놓치 않으려 했다.

더글라스 : (다급한 목소리로) “그렇다면! 이것 말고 불사자를...!”

그러나 레이첼은 더글라스를 보고 미소만을 지었다.

더글라스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레이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레이첼의 미소는 이미 그녀의 대답을 알려주는 듯 했다.

더글라스가 고개를 떨구며 절망하자 페르시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다.

레이첼 :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제가 말한 남자. 그 남자도 죽음을 찾고 있었죠.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더글라스가 고개를 돌려 페르시와 눈이 마주친다.

절망한 듯한 더글라스를 보며 페르시는 더글라스 대신 대답하였다.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네! 가볼게요!”

더글라스 : (놀란 목소리로) “페르...시?”

페르시의 대답에 더글라스는 놀라고 있었다.

트롤과 드워프 엮던 자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상황에 페르시가 함께 모험을 떠나겠다는 말을 꺼낸 것이 믿기지 않았다.

더글라스가 이를 말리려 했지만, 말이 목을 건너기 전에 먼저 페르시가 밝은 미소로 답했다.

레이첼은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더글라스 : (떠는 목소리로) “하지만...”

페르시 : (밝은 목소리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도 이러려고 모험을 떠난거 아니야?!”

더글라스는 카론을 잠시 떠올리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칼스 샤이어의 폐허에서 겨우 자신의 심장을 짊었던 것은, 죽음을 찾기 위해서였다.

카론의 말대로, 페르시의 말대로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 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더글라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레이첼 : (미소를 지으며) “결정이 된 것 같네요. 카빌레스. 그 남자는 그곳에 갔어요.”

레이첼은 더글라스와 페르시에게 지도를 건넸다.

더글라스는 지도를 건내 받았다.

그리고 떨리는 입으로 레이첼에게 한마디를 건넸다.

## PROJECT\_DT SCENARIO

더글라스 : (떠는 목소리로) “고맙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녀의 집을 나섰다.

더글라스가 먼저 나가고 페르시는 나가기 전 레이첼을 바라보았다.

페르시는 무언가 머뭇거리는 듯 했다.

레이첼은 페르시가 무언가 고민하는 듯이 보였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페르시 :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일까요? 아가씨?”

페르시는 어떤 질문을 할까 수많은 생각을 했다.

어째서 마석을 만들었는지.

어째서 마왕의 명령을 들었었는지.

어째서 그런 슬픈 표정을 짓는지.

그렇게 고민하던 페르시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그만 눈물을 흘렸고 결국 레이첼에게 한마디를 꺼냈다.

페르시 : (조용한 목소리로) “저희를...왜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레이첼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페르시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레이첼 :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속죄...일까요...?”

페르시는 레이첼의 떨리는 입술을 느낄 수 있었다.

수많은 감정을 담은 한마디.

페르시에겐 그 한마디가 모든 답이었으나 새로운 고민이 되었다.

페르시도 레이첼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곧장 더글라스의 뒤를 쫓았다.

레이첼은 둘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손을 흔들었다.

- Chapter 1 : 빛이 밝을 수록 어둠은 짙어진다. - 끝 -

## Chapter 2 : 겨울에 핀 코리우스.

[목차](#)

---